광주시, 유휴공간 아트벙커 조성사업 본격화

자치구별 공공·민간 22곳 선정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음악·미술·쇼츠 프로그램 지원
워크숍서 사업 발전 방향 모색

광주지역 곳곳에 잠자고 있던 공간이 시민들의 일상 속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아트벙커 공모를 진행해 공공·민간의 유휴공간 22개소(동구 3, 서구 6, 남구 3, 북구 5, 광산구 5곳)를 선정했다. 이 중 7곳은 우수 아트벙커로 선정돼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며, 15곳은 새로 뽑혔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의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음악·미술·쇼츠·공예 등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트벙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율성, 지속성, 개방성, 확장성을 원칙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2024년 생활문화 아트벙커 스타트 워크숍'을 개최, 올해 아트벙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워크숍은 아트벙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운영자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2024년 선정된 22개소 아트벙커 운영자, 자치구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운영방향 설명 △아트벙커별 사업소개 △2023년 우수사례 발표 △분야별 네트워크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1년차 아트벙커의 성공사례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과 배움의 시간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아트벙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자치구(동구 문화관광과 062-608-2402, 서구 문화예술과 062-360-7194, 남구 문화관광과 062-607-2314, 북구 문화예술과 062-410-6620, 광산구 문화예술과 062-960-84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아트벙커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일상 속 생활문화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AI 기반 첨단농산업 구축 방안 모색

전남도가 농기계, 데이터, 로봇 등 각계 전문가 및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전략 찾기에 나섰다.

도는 지난 27일 첨단농산업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전문가, 공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김세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김옥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본부장, 장길수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이사, 이광욱 ㈜대동 플랫폼사업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플랫폼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세한 부장은 "전남도가 농산업 소부장 기업과 상생하고,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반시설 집적화 및 첨단 농업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일 본부장은 '국산화 기반 미래 스마트농업 육성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실용화 및 전·후방 산업 지원 전략, 지구조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며 첨단 농기계 등 부품 국산화 및 수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수반되는 인증 체계 및 표준화 전략을 제시했다.

'농기계 산업의 현재와 미래'로 주제발표한 장길수 이사는 전남도에 기업 유치 방안 및 농기계 조합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기반 구축을 토대로 민간기업 성장을 주도할 스타트업, 유니콘, 중견기업 등 첨단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이광욱 본부장은 '인공지능 기반 미래농업 기술'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을 살려 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농업 전 분야에서 생산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관리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첨단농산업의 혁신 지구 조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가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과 미래 발전은 물론 세계 농업 선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미래농업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세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가 만들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광주시가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분은 1025대로 지난 2월 조기폐차 지원 공고 이후 2900여대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시민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국·시비를 확보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자동차등록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대폭 확대

광주시가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폐지수집 어르신을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가 개정, 시행한다.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폭염기간 '자원재생활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사업 참여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고 경비 20만원을 받는다. 단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노병하 기자

양수기·수중펌프 가동훈련 광주 남구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과 자율방재단 등이 28일 광주천 중앙대교 인근에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양수기·수중펌프 가동훈련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 K-소비재, 27만 달러 수출계약·협약 '성과'

파리 프리미엄 전시회 참가

전남도가 지역 소비재기업과 함께 참가한 '2024 파리 K-소비재 프리미엄 전시회(KOREA EXPO 2024)'에 참가해 10만 달러 현장 계약과 17만 달러 수출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맞아 프랑스가 글로벌 화합의 장을 준비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린 전시회에는 K-뷰티, K-푸드, K-라이프 등 총 23개국 115개사가 참가해 제품 홍보에 나섰으며, 총 1만8400명이 방문하는 등 파리의 중심에서 한류 열풍을 실감케 했다.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또한 전남 기업 9개사와 함께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상품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의류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다. (사)한국천연염색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천연 염색 의류 및 침구를 선보이며 유럽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10만 달러 계약과 2000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에 성공했다.

㈜소트뉴인터내셔널이 출품한 '이고프리덤 랩(AEGO Freedom Lab)' 또한 7만달러 수출협약에 성공, 전남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 관련 브랜드는 재활용이 필요한 의류를 해체하고 다시 접목해 만든 업사이클 청바지를 소량 생산해 희소성과 특별함을 더한다.

㈜인코돈바이오코스메틱이 전시한 트러블 개선 마스크팩은 독창적 성분, 효과적 기능을 앞세워 1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현지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 기회도 모색했다.

(유)트리와 (주)디엑스엠은 헤어제품, 씨엔씨코스메틱과 (주)이노플럭스는 기초화장품을, 에스에이치엔코는 마이크로 니들 미용패치 등을 앞세워 총 253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의 소비재로 유럽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만큼 이번 전시회가 유럽 시장 진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소비재전을 통해 구축한 유럽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이 유럽 시장 진출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속도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등과 업무협약

전남도는 28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포스백스 등 바이오 기업과의 업무협약 등 투자 유치 구체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현재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백신·면역치료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산업을 주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실제 이미 정주 가능한 1000명 이상의 바이오 인력양성 체계가 완비됐으며,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미국에 본사를 둔 연 매출 400억 달러(한화 47조원) 규모의 세계적 과학기술 기업이다. 진단, 생명과학, 연구소 공급 분야에서 독보적 역량을 구축한 이 기업은 현재 전남도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연내 기술지원센터 개소 및 추가 투자 협의를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기술지원센터가 개소하면 남부지역 바이오 공급망 기반 구축과 컨설팅, 인력 양성 등 토털서비스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스케일업(scale up)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백스는 자궁경부암 등 인유두종 바이러스 분야 선도 백신기업으로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수입백신 국산화와 수출, 프리미엄 백신 개발과 치료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화순은 지난 20년간 정부의 지원, 도와 군의 강력한 의지로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와 백신, 면역치료 중심 첨단바이오 전주기 기반시설을 갖춘 특화단지의 최적지"라며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화순을 케이(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 거점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